

우리학교, '국제화' 부문 국내대학 1위 의대 없는 종합대학 중 아시아 7위

우리학교가 지난 QS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랭킹 현대어문학 분야에서 국내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달 5일(수) 발표된 '2013년 조선일보·QS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제화 종합순위에서 지난 해 보다 1순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해 아시아 10위권 내 유일한 한국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제화 부문 중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 5위(국내 1위)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 8위(국내 1위) △외국인 교원 비율 22위(국내

2위) △외국인 학생 비율 31위(국내 8위)를 기록했다.

의과대학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 순위에서는 아시아 7위에 올라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순위는 지난 해 보다 1순위 하락한 결과지만 국내에서는 변동 없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대학 종합 순위는 7위로 지난 해 비해 6계단 내려가 국내 13위를 기록했다. 또 학계 평가 지표의 인문·예술 분야에서 27위로 국내 5위, 사회과학·경영 분야에서 52위로 국내 10위에 올랐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하는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는 이번 해 △연구영역(학계 평가, 교원 당 논문 수, 논문 당 인용된 횟수) △교육여건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외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등 총 9개 지표로 아시아 457개 대학을 평가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 순위〉

순위	2012년	2013년
1	한국외대	한국외대
2	경희대	연세대
3	서울시립대	경희대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 순위〉

순위	2012년	2013년
1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2	연세대	경희대
3	한국외대,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



▲지난 해 3월 26일(월) 박철 총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세계 84개국 521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학관 공식 사진 촬영 : Pete Souza)

서울배움터, 새로운 공연장 생겨

이번 달 5일(수)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나무계단에서 콘서트 열렸다. 나무계단 콘서트는 동아리연합회가 교내 동아리 행사에 좀 더 많은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연은 우리학교 동아리인 △하울 △노래나래 △F.A △외인부 △HUFSPH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통예슬원 '280'이 참여해 교내 동아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연을 관람한 심해

빈(영어·영통 12)은 "그동안 이름만 들어봤던 동아리들의 공연을 실제로 보게 돼 좋다"며 소감을 전했다. 나무계단 콘서트를 기획한 황정훈(사회·인정 09)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무계단을 학생의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려한다"며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나무계단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의대 없는 아시아 종합대학 순위〉

순위	대학	국가
1	난양공대	싱가포르
2	홍콩폴리텍대	홍콩
3	중국과학기술대	중국
4	와세다대	일본
5	베이징사범대	중국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7	한국외대	한국

〈국제화 부문 종합 순위〉

순위	2012년	2013년
1	한국외대	한국외대
2	경희대	한양대
3	성균관대	동국대
4	동국대	경희대
5	중앙대	서울대
6	이화여대	이화여대
7	포스텍	포스텍

HUFS Global Cooperartion Program에 도전하세요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는 글로벌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세계평화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석사학위 과정에서 'HUFS Global Cooper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HUFS-UPEACE 공동 석사학위 과정 △HUFS-KOICA 1 - 국제개발학석사(비교개발전공) 영어과정 △HUFS-KOICA 2 - 국제개발학석사(국제개발협력전공) 불어과정 등 3분야의 석사과정이다.

국제지역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엔평화대학원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 신설된 HUFS-UPEACE의 세부전공에는 △미디어와 평화화전공 △국제법과 인권전공 △지속가능개발전공 등이 있다. HUFS-UPEACE

공동학위과정생은 1년은 우리학교에서, 1년은 UN평화대학 코스타리카 캠퍼스에서 수학해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다음 신입생 모집은 10월 14일(월)~18일(금)에 특별전형, 11월 18일(월)~22일(금)에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HUFS-KOICA 1, 2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0년에 시작된 HUFS-KOICA 1은 KOICA에서 발표한 중점협력 개발도상국의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추세와 개발전략을 교육한다. 우리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40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자국의 정

책개발·수행 등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2011년부터 신설된 HUFS-KOICA 2는 우리학교가 아시아 최초로 신설한 과정이다. 서아프리카 불어권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서유럽 시각 중심의 ODA에서 벗어나 본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3명이 졸업했으며 서아프리카권역의 국가 개발정책과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김옥범 국제지역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 과장은 "내국인들도 이 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연수과정을 마친 개발도상국가의 현직 공무원들은 본국에 귀국해 좋은 자리로 이동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지면안내

2 비총 무산, 이후 전학대회...

4 한 학기는 외국에서?

5 시각장애인 번역가, 김현웅씨

6 학술, 상상력의 철학

8 외대학보, 한학기동안 어땠나요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독자위원회에 대한 외대학보의 자세

▲이번 달 4일(화)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100일이 됐다. 이에 동아일보, 한겨레, K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복지 △남북관계 △인사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언론사는 각 분야의 해당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목별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한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내렸다.

▲사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은 대통령 전제 임기인 5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 취임 후 100일에 즈음하여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보도 해왔다. 물론 일부에서는 10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하나의 관행처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지난 100일 간 정부 정책에 관해 파악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100일간 실시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 평가를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단순히 '취임기간이 짧아 이번 평가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번 결과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 대신 '이번 국민들의 평가가 남은 5년 동안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게 제시한 방향'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5일(수) 서울배움터 외대학보사에서 이번 한 학기 외대학보 독자위원으로 활동한 학생들이 모였다. 독자위원회는 이번 학기동안 매 주 한 번씩 모여 학보를 분석했다. 또 매 호가 발행될 때마다 '지난호를 말하다'라는 코너에서 학보에 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해왔

다. 이에 이번 962호의 8면 '외대N인터뷰'에서는 이번 학기 발행된 학보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외대학보 독자 간담회'를 심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독자위원들은 지난 학기 발행된 5개의 학보를 독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외대학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었다.

▲외대학보가 독자간담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도 현 정부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와 비슷해야 한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정치활동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룰지에는 지금 평가받은 내용을 귀담아 듣는 자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에 외대학보도 이번 독자위원회의 간담회를 단순한 일회성의 간담회에 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하나의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홍규원 부장

학내 브리핑

‘정독상’ 노리세요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 대학원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서울배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6월 17일(월)부터 8월 2일(금)에 걸쳐 정독상 독서 감상문을 모집한다. 지원을 받은 독서 감상문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다음 학기에 선정해 상장 및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독서 감상문 추천 도서는 도서관 1층 대출창구에 비치되며 추천 도서 4종 중 한 종을 선택해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추천 도서는 △고령화 가족 △위대한 개츠비 △죽음이란 무엇인가 △피로사화다. 추천 도서 및 투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만원으로 중국어 배우자

우리학교의 중국어·중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 공자아카데미에서 2013년도 여름방학 중국어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7월 1일(월) 열려 8월 23일(금)까지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회화와 新HSK 두 부분으로 나뉘며 △회화의 경우 입문·초급·중급·고급 △新HSK의 경우 4급·5급·6급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재학생의 경우 수강료의 20%가 할인돼 교재 포함 20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 95%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강료의 70%를 장학금으로 준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http://gongj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방학은 짬으로!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에서 하계 짬 단기 어학연수에 참가 할 학생을 이번 21일(금)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45명으로 hufs.dhaam@gmail.com이나 학생회관 301호 총학생회실로 공지사항에 게재된 원 필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사용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기간은 다음 달 16일(화)부터 29일(월)이며 교양 3학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hufs.ac.kr) 또는 글로벌배움터 커뮤니티 홈페이지(www.hufstory.com)를 참고하면 된다.



만평 학보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김경보

“글로벌 시대 외대인의 역할은...”

박진 석좌교수 공개 특강



▲박진 석좌교수가 글로벌시대 외대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박진 국제지역대학원 UN평화와 석좌교수가 이번 달 3일(월), 5일(수) 재학생들을 위한 공개 특강을 진행했다. 10여 년 간 국회의원, 국회의원교통상 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박진 교수는 이번 해부터 우리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3일(월) 개최한 특강에서 박진 교수는 ‘글로벌 시대, 외대인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국제정세, 외대인들의 강점 등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외대가 유일하다”며 “우리 학생들은 이 지역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외교문제 등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민준(글로벌경영 12)군은 “아시아 국제정세

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흥미롭게 설명해주셔 진지한 자세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외대를 널리 알리는 인재가 돼야겠다는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를 뒤 특강에서는 법대 및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

회입법과정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종로구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진 교수는 △국회의 입법과정 △입시국회 처리법안 △법조인의 역할 등에 대한 생생한 강연을 전달했다. 강용덕(법·법 08)군은 “책에서만 봤던 입법과정을 좀 더 실용적이고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치며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발전에 법조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공부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텐데 오늘의 강의가 의미 있고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학생이 만드는 학생식당 메뉴

제3회 생협배 왕산 요리대회 열려



▲뽕양공팀의 김병현군이 태국식 뽕밥을 요리하고 있다.

이번 달 4일(화) 글로벌배움터 후생복지관 학생식당에서 ‘제 3회 생협배 왕산 요리대회’가 열렸다. 생활협동조합(생협)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학생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매학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 주제는 ‘학생식당에 적합한 메뉴’로 창의성과 조리실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또 생협은 수상자를 학생식당의 메뉴로 반영하며 수상자들에게 △1등 15만원 △실용상 10만원 △특별상 5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글로벌배움터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요리대회에는 총 7팀이 참가했으며 각 팀에게 △감자 △양파 △밀가루 △소금 등의 기본 요리재료와 요리기구가 배분됐다. 50분의 조리시간이 주어졌고 심사기준은 △주제 △맛 △위생 △영양 등으로 심사위원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뺀 평균점수로 심사 가 이뤄졌다. 1등의 영예는 카레소스불고기뽕밥을 만든 카레대왕팀(정혁교, 강혜원)에게 돌아갔다. 이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정진성 생협 사무국장은 “△밥 △카레소스 △야채 △고기 각 재료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고, 학생식당 메뉴로 적합한 음식이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레대왕팀의 정혁교(통번역·스페인어 13)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참가했고 둘 다 카레와 고기를 좋아해 이 음식을 만들었다”며 “상

상도 못했던 1등을 수상해 행복하고 카레소스불고기뽕밥이 학생식당 메뉴로 만들어지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2등은 태국식 뽕밥과 된장국을 만든 뽕양공팀(김수환, 김병현)이 차지했다. 지난 대회에서 입상을 차지한 바 있는 뽕양공팀의 김수환(통번역·태국어 08)군은 “겨울에 태국연수를 가서 먹은 태국음식이 인상적이어서 꼭 배기라는 한국적 요소와 결합해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신의진(동유럽·폴란드어 10)생협장은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잘 마무리 됐고 다음 학기에도 요리대회가 있을 예정이니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외대학보는 외대의 역사다



▲지난 해 3월 26일(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본교를 방문했을 당시 박철 총장과 양 국기를 배경으로 촬영한 백악관 공식 사진(촬영: Pete Souza)

지난 2012년 3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본지는 이를 기념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문기념 특별호(948호)’를 제작했으며, 이는 외대학보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2013년, 본지는 또 하나의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본지는 외대학보의 역사를 넘어, 외대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무산된 비상총회, 상정됐던 안건은 어디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비상전학대회 열어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번 달 3일(월)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열었다. 지난 달 22일(수) 열린 비상총회가 무산돼 총회에 상정됐던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총회에 상정됐던 안건은 △도서관시설정비 △학사정책예고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재신입 △LD커리큘럼 학생피해 대책안 등이다. 이에 따라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 내역을 심의하는 것 외에 총회에 상정됐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안건은 한대련재신입관련안건이다.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학기에 학생총투표 관련 조항을 제정한 후 다음 학기에 한대련재신입총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다음 학기 학생총회를 통해 한대련재신입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생이 한대련

이라는 단체 자체에 관심 갖지 않아 다수의 기권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논의 결과 전학대회 성원은 한대련재신입여부를 다음 학기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대련재신입여부를 학생총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학생총회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결의하기로 합의했다.

총학생회는 중운위 및 전학대회와 총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한 △학사정책예고제 △도서관시설정비 △LD커리큘럼 학생피해 대책안의 안전을 현재 계획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의했다. 다만 전학대회 성원은 학사정책예고제 안전과 관련해 중운위에서 LD커리큘럼관련 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TFT)을 인준하기로 했다. 또한 학사정책예고제와 LD커리큘럼 학생피해 대책안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공문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논의 안건 진행 전 있었던 예결

산 심의에서는 총학생회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총학생회는 예산안에서 후원금으로 5백만 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결산안에는 2백만 원의 후원금이 기재된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인사를 인준 받는 시기가 늦어져 추계 기획도 늦게 진행돼 기획을 시작할 때는 다른 학교가 이미 후원업체를 선정한 상태였다”고 해명하며 “부족한 부분은 총학생회의 장학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성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지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생조직. 총학생회가 한대련재신입을 받을 경우 △대학생연합체의 상징성 △정보공유의 편리성 △실무분야의 자문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대련은 대학생의 연합체임에도 정치이념이 편향했다는 논란이 있다. 또한 한대련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가 한대련재신입을 받을 경우 순기능과 부작용이 동시에 예상된다.

earTHome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is summer vacation?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곧 맞이할 방학에 목표나, 계획 하나 정도는 생각했을 것이다. 가령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남들이 차지하기 일주일 전부터 자리를 물색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외국인 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외국인 학생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할까?

이번 여름방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집으로 가나요?

아니요.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국제여름학기에 참가해 수업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하진 않았지만 국제여름학과 제주도 여행은 꼭 하고 싶네요.



▲하비에르 무로 리베라(Javier Muro Rivera), 멕시코, international relation 교환학생

이번 여름 방학 때 한국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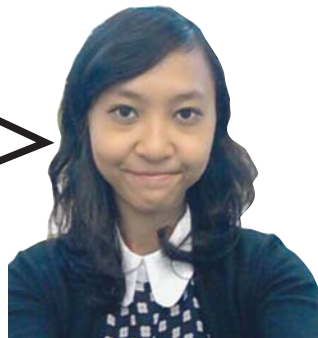
안산에서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에 갈 것입니다. 정말 멋진 가수들과 락밴드가 많이 오거든요. 또, 미국친구와 부산여행도 갈 계획입니다. 부산의 해변에서 여름 날씨를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서울도 좋지만 서울에는 해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학교에서 독일어나 영어를 가르치는 인턴십을 하고 싶습니다.



▲로린 루터(Loeben Luther), 독일, Korean and English

이번 여름방학에 특별하게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저는 서울 뿐 아니라 한국을 전체적으로 여행하고 싶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전주와 광주를 여행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한옥 마을로 유명하고 광주는 신라 시대의 왕궁이나 유적지들이 많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한국의 전통모습을 체험하기 위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프린 페리나 사리(Prin Ferina Sari), 인도네시아 publ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studies

교수님은 방학 동안에도 한국에 계시나요? 한국에서 휴가는 어떻게 보내나요?

저는 먼저 부산 해운대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터키어를 가르치고 글로벌배움터에서도 다음 달 26일(금)까지 터키어 강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터키로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연락만 주고받던 친구들도 만날거예요. 물론 △양카라 △중굴막 △이스탄불 등 다양한 도시로 여행도 다닐 겁니다. 다음 학기 수업준비도 틈틈이 해야하고요, 2학년 수업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개강 5일 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꼭체 므스르르(Misirli Gokce), 터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주희진 수습기자 87heejinlee@hufs.ac.kr

구연지 수습기자 87mdusw148@hufs.ac.kr

세계 브리핑

터키 반정부 시위 계속돼



▲공원 철거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가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이스탄불 탁심광장의 게지공원에서 정부의 쇼핑몰 건설을 막으려는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곧 터키 반정부 시위로 확대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당시 경찰이 최루탄,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자 수도 앙카라를 비롯한 여러 도시로 시위가 확산된 것이다. 이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되고 확산됐다. 이렇게 과잉 진압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터키 증시는 곤두박질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하지만 정작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증시는 원래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며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고,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시위대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총리가 이스탄불 탁심광장을 찾아 시위대를 만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세계 2대 의류 수출국 - 방글라데시, 이대로 무너지나

방글라데시 수도 부근의 한 의류공장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렸다. 한 공장 관계자는 “600여명의 직원이 위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공장은 물 공급 경로가 잘 구비돼 있는 A급 공장으로 오염의 소지가 없다”며 “누군가가 물에 약물을 섞은 고의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체 비극으로, 방글라데시의 의류 생산과정에 대한 집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약 4,500여 개의 의류공장은 △영국의 프리마크 △이탈리아의 베네통 △스페인의 망고 등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브랜드의 옷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버금가는 의류 수출국가지만 하루 평균 약 10~15시간정도 일하는 반면 임금은 한 달에 3천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은 물난리 중

이번 달 4일(화) 강물이 △독일 △체코공화국 △오스트리아를 휘몰아치고 갔다. 강물은 역사적인 도시들을 덮쳤고 낮은 대지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다.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심각한 홍수로 독일과 체코 공화국의 일부가 완전히 붕괴됐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로마에도 그 여파가 있었다. 체코 소방국 대변인은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최근 홍수의 결과로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북부 보헤미아 지역과 블타바강과 라베강 주변에는 아직도 홍수의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에른과 작센지방을 포함한 독일의 남동부지역도 최근 폭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CNN의 한 기상학자는 “현재 바이에른의 물은 점차 빠지고 있지만 다뉴브강의 물은 계속해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iBT-영어·중국어』

iBT-영어	특징 ◇ 인터넷 기반의 첨단형 평가 ◇ 글로벌 차세대를 위한 외국어 평가 ◇ 상시 접수와 신속한 성적결과 통보 활용도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인증 및 실용외국어 학점인정 ◇ 한국외국어대학교(원) 진학 및 편입 대비	iBT-중국어
--------	---	---------

iBT-영어·중국어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는 2013년부터 iBT(Internet-Based Test)-영어와 iBT-중국어를 개발하여 주 1회 이상 (iBT-영어), 월 1회 이상 (iBT-중국어) 시행 하고 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는 1999년부터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개발 시행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약하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개발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어관련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도구개발 Know-How를 집약시켜 컴퓨터 환경에서 듣기,읽기,말하기,쓰기 시험(듣기와읽기만 선택가능)을 시행할 수 있는 iBT(Internet Based Test, 인터넷 기반) 시험을 개발하였습니다.
- ▷ iBT-영어·중국어는 IT 환경에서 활동할 차세대 글로벌 인재의 외국어 능력을 진단 및 평가하는 도구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진학 준비생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iBT-영어·중국어는 최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구성된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입니다.

iBT-영어·중국어의 세부 시험 구성과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별 구성 및 시험 시간: 듣기,읽기만 신청 가능〉

교시	구분(영역)	문항유형	문항수	시간(휴식시간 제외)
1교시	듣기	3,4지선다형	50문항	40분
2교시	읽기	4지선다형	50문항	60분
3교시	쓰기	입력	3문항	40분
4교시	말하기	녹음	6문항	13분30초
계			109문항	155분

▷ 평가 영역 :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듣기읽기는 객관식, 말하기 쓰기는 과제수행형식)

▷ 영역별 시험 방식

영역	시험 방식
듣기	문제를 헤드셋으로 듣고 화면의 답을 선택
읽기	컴퓨터 화면의 지문을 읽고 답을 선택
말하기	문제를 헤드셋으로 듣고 헤드셋으로 응답 녹음
쓰기	화면의 문제를 보고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

▷ 답안 채점 : 듣기·읽기 영역의 경우 자동채점제로 시행하며, 말하기, 쓰기 영역의 경우 FLEX센터에서 인증한 전문 채점위원이 채점하여 응시자의 취득점수에 근거하여 9개 등급(1A~3C)으로 구분하여 결과 발표를 한다.

▷ 원서 접수 : 가. 인터넷접수 : FLEX센터 홈페이지(http://flex.hufs.ac.kr)

나. 접수 기간 : 월 09:00~금 17:00 (시험 시행 1주 전 종료)

▷ 결과 발표 : 인터넷으로 시험 후 1주일 내 결과 발표(홈페이지)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7+1 제도, 어떤가요?

운영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다



이번 달 31일 발행된 중앙일보에는 우리학교 박철 총장의 인터뷰기가 실렸다. 인터뷰에서 박 총장은 “대학이 발전하려면 세계와 친구가 되어 한다”며 “우리학교는 ‘7+1’ 파견학생 제도를 확대해 재학생이 한 학기는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학교의 국제화를 위해 7+1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를 시행한지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학교는 7+1 파견학생제도를 어떤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학생은 제도에 만족하고 있을까 이번 기획에서는 7+1 제도의 현황과 학생의 반응 등에 대해 알아봤다.

◆7+1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학교는 해마다 1월과 7월 자유경쟁선발로, 3월과 9월 우수입학자선발과 학과선발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한다. 다만 학과선발에 지원하는 학생 중 영미권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2월과 8월에 지원을 받고 있다. 자유경쟁선발의 경우 우리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어학성적을 1대 1의 비율로 합산한 뒤 면접을 통해 해외에 파견될 학생을 선발한다. 또한 우수입학자선발로 지원하려는 학생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성적이 10% 이내에 속하는 학생 중 1학기와 2학기의 평점이 3.8을 넘어야 한다. 2008학년도와 2010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은 정시로 들어온 학생 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학생에 한해 1학기와 2학기의 평점이 3.5를 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성적에 상관없이 1학기와 2학기의 평점이 3.7을 넘어야 한다. 학과 선발의 경우 지원 희망 학생이 소속된 학과마다 지원할 수 있는 시기와 그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은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사무실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은 6개월 전에 미리 지원을 해야 한다. 2학기에 해외 파견을 가고 싶은 경우 같은해 상반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오승경 국제교류팀 직원은 “영미권의 대학으로 지원하려는 학생은 토플점수가 필요하다”며 “우리학교에서 실시하는 기판도

플에 응시하고 그 점수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국제교류팀에서는 7+1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었다. 오승경 국제교류팀 직원은 “7+1 제도의 본 취지는 심도 있는 전공지식습득이지만 해외에 파견된 학생들은 주로 교양이나 전공기초수업을 이수하고 문화체험을 위해 틈날 때마다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학의 기회가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아 알아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라는 당부다. 실제로 관심의 정도와 노력에 따라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각기 달랐다. 때문에 7+1 제도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취업 준비의 부담이 비교적 덜한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학교는 7+1 제도에 선발된 학생에게 우리학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거나 반액 지원해주고 있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7+1 제도를 희망하는 학생수가 배정된 인원을 넘는 학과는 배정인원을 늘리고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을 반액으로 분할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희승 국제교류팀 7+1 제도 담당자는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학과에 한해서는 우리학교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액수를 나눠 더 많은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7+1 제도에 선발된 학생은 해외 대학

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출국 전과 귀국 후 두 번에 걸쳐 우리학교에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학생이 파견된 대학교의 성적 부여 체계가 우리학교와 다를 경우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학과장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한 학생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의 알바니 대학교에 다녔던 이우빈(영어·영문 10양)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영문학을 공부한다는 점이 좋았

받아왔을 때 Pass를 부여하고 그 미만의 성적을 받아왔을 때는 Fail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파견된 학생이 F의 성적만 받지 않으면 Pass를 부여하고 있다. 7+1 제도를 통해 미국의 알바니 대학교를 다녔던 이우빈(영어·영문 10양)은 “해외 대학에서 국내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은 주로 우리학교 학생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송주 스페인어학과장이 “파견된 학생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Pass or Fail’ 제도보다 우리학교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오승경 국제교류팀 직원은 “성적부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우빈(영어·영문 10양)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앞으로 우리학교가 모든 학생이 7+1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문제에 대한 보완이 선행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했다.

◆7+1 제도, 계속 발전하고 있나?

현재 국제교류팀은 7+1 제도를 이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승 국제교류팀 7+1 제도 담당자는 “파견된 학생이 돌아온 뒤 귀국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만족도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그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1 제도를 경험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 자료는 우리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의 국외교류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7+1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도 대부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수요가 적은 나라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학기에 탄자니아로 파견될 예정인 박승아(국제지역·아프리카학 11)양은 “아프리카의 특성상 정보가 풍부하지 않아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과선발이나 성적부여기준도 학과마다 안이 달라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7+1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제도에 지원했다가 피해를 보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양재상·이민정 기자 86haveri@hufs.ac.kr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꾸준히 증가 중 학과마다 진행과정·절차 달라 문의 필요 수요가 적은 나라는 정보 수집하기 힘들어

이 자신의 재량으로 학생의 성적을 조정한다. 한 예로 글로벌배움터 헝가리어과는 해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온 학생의 성적을 다섯 단계로 나눠 각 단계마다 A+에서 C+까지의 성적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배움터 마인어통번역학과와 영어·영문 10양은 “성적부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류팀 “7+1 제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국제교류팀에 따르면 최근 8년간 7+1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146명인 반면 지난 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622명으로 나타났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배움터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와 영어·영문 10양은 “7+1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622명으로 나타났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배움터 중국학부도 7+1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 1학기 20명에서 이번 학기 3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번 해는 1학기에만 351명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이 7+1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7+1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는 이 제도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꼽힌다. 7+1 제도를 통해 태국의 부라파 대학교를 다녔던 전민경(통번역·태국어 07)군은 “7+1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전공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나 자신도 태국어 실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태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진로와 내 실력에 대해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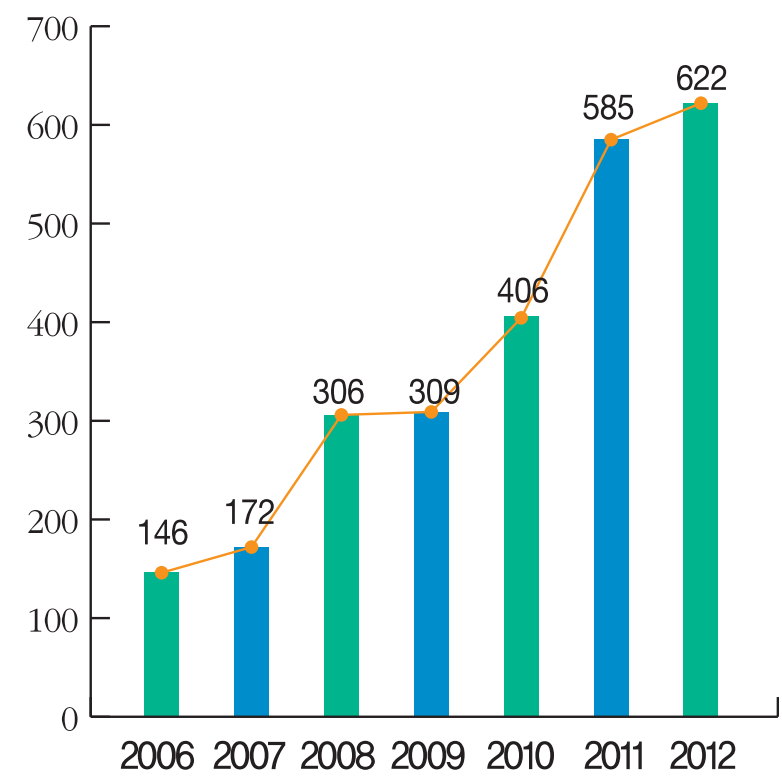
고 영문 텍스트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7+1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파견 가있는 동안 학교측이 파견된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점도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뽑혔다. 7+1 제도를 통해 영국의 레스터 대학교를 다녔던 안지혜(영어·영문 10)양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제교류팀이 많은 도움을 주고 필요한 정보는 파견간 대학에 직접 문의해 주기까지 해 우리학교가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제도를 이용한 학생 “좋았지만, 힘들었던 건...”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7+1 제도를 비롯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크게 학업의 부담과 비용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 학교에 파견된 학생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학업을 진행할 때 많은 부담을 겪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우리학교는 성적인정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Pass or Fail’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학교의 성적산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었다. 7+1 제도를 통해 미국의 세인트존스 대학교를 다녔던 우지원(영어·영문 10)양은 “해외 대학은 기본적으로 과제가 많았다”며 “그러나 재학생들은 그 과제를 2, 3일에 끝내는데 비해 파견학생은 과제를 끝내는데 일주일 이 넘게 걸려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학교는 대부분 ‘Pass or Fail’ 제도를 적용해 파견된 학생의 성적을 부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해외에 파견된 학생이 C 이상의 성적을



▲연도별 7+1 제도 이용학생수(출처:국제교류팀)

국기수	대학수	기관수	총계
84	392	129	521

▲5월 15일(수) 기준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협정체결현황. 최근 우리학교는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출처:국제교류팀)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김현용씨와의 인터뷰

번역하는 시각장애인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건물로 들어서면 다른 건물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강의실 문 옆마다 강의실 호수가 적혀 표시돼 있는 것이다. 이는 시각장애인 김현용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번역전공 13)씨의 입학 후 생긴 변화다.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시각장애인이 입학한 것은 이번 해가 처음이다.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번역'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를 만나기 위해 대학원 강의실을 찾았다. 노트북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는 그의 강의실 구석에는 시각장애인을 지팡이가 보였다. 초등학교 때 시력을 잃은 그가 27살의 나이에 번역이라는 길을 택하기까지의 과정에 함께 귀 기울여보자.



기자 인터뷰 전 전화로 약속을 잡을 때 “문자 한 통 보내달라”는 김현용씨(이하 김씨)의 말에 놀랐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답장도 오더라. 번역 일도 컴퓨터로 하던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

현용 문자메세지를 음성메세지로 전환해 들려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폰의 경우 스마트폰에 나오는 모든 시각자료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것을 이용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도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기계가 텍스트를 읽어준다. 이런 보조공학기술들은 예전에는 나에게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기자 김씨는 초등학교 때 시력을 잃었다고 들었다. 이런 보조공학기술이 발달한 것은 최근의 일인데, 그동안 공부하기 어렵지 않았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용 나는 맹인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곳은 점자필기기와 점자교과서를 제공한다. 나를 어렵게 한 것은 사실 학

습적 측면보다는 ‘사회화’라는 측면이다. 정안인(正眼人)들과 분리돼 맹인(盲人)들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평온했던 학창시절과는 달리, 대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살다보면 공부보다 사회성이 중요할 때가 많다. 남자 친구들이 축구나 게임을 할 때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안타까웠고, 새내기 때 가진 술자리 게임에서도 편히 즐길 수 없었다.

그래도 공주대학교에서 보낸 학부 시절은 특수교육과에서 공부했기에 학교 내에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학생활에 차근차근 익숙해질 수 있었다. 대학이라는 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살아도 특별히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곳이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취직 후였다.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영어 교사로 학교에 갔는데, 마치 하늘을 날다가 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동료 교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고, 그러다보니 악의는 없어도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듯 했다. 점자 교과서와 시설의 부재에서부터 아주 사소하게는 동료들이 간단히 대화하는 메신저도 어려움을 줬다. 그 메신저 프로그램에 보조공학기술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다들 지친 상태에서 쉬러 온 것인데 도와달라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자 대학원 입학에 장애인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 생활에서 생긴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학원까지 입학한 노하우가 있나.

현용 교사 생활의 경우 하나하나 해결해 갔다.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관을

통해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요구해 보조교사를 배정받았다. 교직 업무를 위한 전자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에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차근차근 풀려갔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해결되더라. 세상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나 할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영원히 일반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다 보면 비장애인과 비슷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같다. 일단 같은 선상에 서면 그 이후부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거나 같다. 대학원 입학도 그런 것이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했다. 내 인생에서 꾸준함은 영원한 것 같다.

기자 지금은 교사 일을 그만두고 번역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다. 왜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번역이라는 학문을 선택했나.

현용 교사는 하나의 직업이다. 직업은 그냥 인생의 한 단편인 것 같다. 식사를 하려면 밥도 있어야 하지만 찬찬도 있어야 한다. 교사라는 직업은 나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밥’ 같은 것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은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영어를 더 배워 더 좋은 영어교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번역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사실 대학생 때부터 번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 못했다.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 예전의 꿈이 되돌아오더라. 이제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의 매력은 언어의 새 세상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영어를 수년간 공부했고, 영어교사까지 했지만 번역을 하는 순간 내 영어실력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미안해질 정도였다. 번역은 세심하게 언어의 뜻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claim’이라는 단어, 단순히 ‘주장하다’라며 넘어가

는 경우가 많다. ‘주장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insist’, ‘demand’, ‘suggest’ 등 더 많이 있는데 왜 하필 ‘claim’을 썼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한글의 경우 ‘우기다’, ‘역지 부리다’ 등은 ‘주장하다’와는 확실히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지 않나.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런 고민 없이 공부해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번역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다.

기자 혹시 김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번역 공부에 더 도움을 주기도 하는가.

현용 도움은 모르겠지만 제약은 없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이렇게 제약이 없는 분야도 드문 것 같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많이 하는데, 안마가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번역의 경우도 아주 기초적인 보조공학장치만 있으면 스스로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다. 또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눈이 보였더라면 번역에 몰두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정신을 빼앗겼을 지도 모른다.

기자 마지막 질문이다. 김씨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현용 나의 가장 큰 지상과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나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과 친구들 말이다. 내가 워낙 빛을 많이 지고 산 인생이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안다. 시각장애인들이 길 안내를 많이 받는데, 가끔 내가 길 안내를 해주면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이 ‘집’이 아니라 ‘행운’처럼 느껴지길 꿈꾼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말이다.

글 임재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사진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김현용씨가 기자에게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을 찍으면 휴대폰이 얼굴 하나라고 말해주고, 두명일 때는 큰 얼굴 하나, 작은 얼굴 하나라고 말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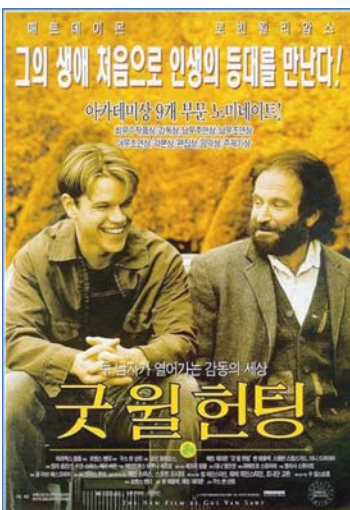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새로운 면을 알아보고 싶은 칼럼입니다.

기다린다, 말없이

심리상담소 안에 상담사와 학생이 있다. 학생의 얼굴을 보아하니 표정이 어둡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엉켜있어 위트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학생에게 상담사는 말한다. “네 탓이 아니야.” 학생은 새삼스럽다는 듯 “저도 알고 있어요”라고 답한다. 하지만 상담사는 다시 말한다. “아니. 내 눈을 보고 말해. 네 탓이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을 수차례 반복한다. 듣고만 있던 학생은 계속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다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상담사에게 안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미안해요.”

영화에 나오는 학생은 이 상담사를 만나기 전의 심리상담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상담사를 비웃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까지 한다. 상담사들은 그 학생을 이해해 보려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건네지만, 학생의 계속되는 모욕에 모두 지쳐 떠나고 만다. 그랬던 학생에게 한 상담사가 나타난다. 이 상담사는 좀 이상하다.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는 학생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 질문 없는 조용한 상담은 계속 이어진다. 침묵이 싫었던 학생



▲영화 Kut-wil Hunting

은 결국 그 상담사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학생이 입을 열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계속 기다려준 이 상담사처럼, 대부분의 상담사는 자신의 상담을 통해 학생이 말을 트고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에게 와 닿는 말을 해주려 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쉽사리 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영화에서도 수많은 상담사들이 학생에게 지쳐 치료를 그만뒀다.

우리로 살다보면 힘든 사람에게 상담해줄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능한 힘이 되는 말을 그에게 해주려 하지만 쉽지 않다. 건네준 말이 그 사람에게 가 닿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지루한 기다림을 인내해야 결국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재윤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칼럼입니다.

이 여자와 그 여자

그림을 펼친다. 한낮의 더위가 조금은 물러난 저녁,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 앉은 채다. 테이블 위에 그림을 내려놓고 감상하던 중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그림 위에 앉는다. 벌레는 뭉크 그림의 가치 따위 알 바 아니라는 듯 그림을 거침없이 밟으며 돌아다닌다. 움직일 수 없는 그림 안 사람들을 놀리듯 자유롭게 춤추던 벌레는 이내 날아가 버린다.

이렇듯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육체의 움직임이든 정신의 움직임이든 생명체는 항상 움직인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채롭고 아름다우며 빛을 발한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흰 원피스의 여자는 이런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젊다. 양 팔에선 움직임이 느껴진다. 하얀 원피스는 깨끗하고 얇아진 기복이 있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다. 그녀의 볼은 통통하며 건강한 홍조로 빛난다.

그렇다면 생명의 정 반대에 있는 죽음은 어떨까.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검은 원피스의 여자는 여윌 표정 없는 얼굴을 지녔다. 그녀는 마치 이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임 없이 서있다. 무엇을 응시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는 죽음처럼 어둡다.



▲에든브르크 뭉크, 생명의 춤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여자의 모습은 밝음과 어둠의 관계가 그렇듯 극명하게 대비된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두 여자의 얼굴이 묘하게 닮은 것처럼 느껴진다. 춤추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서있는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

둘은 아마 동일 인물일 것이다. 삶과 죽음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여자를 제외한 그림의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를 감싸고 있다. 이들은 꼭 붙어서 빙글빙글 춤을 춘다. 이 그림의 제목은 ‘생명의 춤’. 생명은 혼자서는 춤출 수 없다. 죽음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동반해 춤을 추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림은 죽음이 항상 삶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림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여자를 제외한 배경이 어두운 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가치 있는 이유는 죽음이 그와 함께 존재하며 그것을 빛내주기 때문일 것이다. 움직임 없는 그림 위에서 춤추던 벌레의 모습처럼 죽음과 삶은 뒤엉켜 있다. 그림은 말한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존재하며, 죽음이 있기에 삶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네모가 꾸는 둥근 꿈

상상력의 철학자 박치완 교수가 말하는 이 시대



사진: 양재남 기자

가수 white가 부른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다. 노래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 네모난 조각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노래는 이어 이렇게 말한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 둥근데 / 부족품들은 왜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경쾌한 멜로디의 이 노래는 현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학교 철학자 박치완 교수는 "우리가 사는 현실은 꿈이 마르고 소동이 단절된 모난 세계"라며 현대를 진단한다. 그는 "이러한 세계에서는 역설적으로 상상력을 통한 둥근 꿈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상상력의 대가로는 프랑스 철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가 있다. 이 바슐라르를 사랑해 제자들의 의해 '박술라르'라는 별명까지 지니게 됐다. 박치완 교수, 그를 통해 현대 문명을 철학적으로 진단해 보고 그 속에서 상상력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사는 박 교수가 2005년 경희대학교 문화비교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상력의 힘과 현대문명 비판'이라는 논문을 같이 읽으며 전개된다.

이미지의 황홀한 범람

이 논문을 시작하며 박 교수는 현대 문명을 진단하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 아래 현대는 정체를 감춘 채 자신을 상품화하기에 만 할인이 돼있다"고 말한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의 본질은 가린 채 오로지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가상 이미지를 끊임없이 내뿜는다는 것이다. 그 이미지는 달콤하지만 물건의 실상을 담고 있지 않다. 논문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물건'을 사고팔고 있기 보다는 '이미지'를 사고팔고 있다"며 이러한 이미지를 '근거 없는 이미지'라 칭한다. 그것은 황홀하지만 실재를 근거로 하지 않으며 인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근거 없는 이미지가 갖는 힘은 점차 커져 현대는 '이미지가 꿈 현실이 돼버린 세상'에 이어 '이미지가 꿈 현실이 돼버린 세상'이 됐다"고 말한다. 파스칼 브뤼크네르는 이런 일그러진 현실을 '변영의 비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많은 것들이 변영한 이미지의 황홀경 속에 인간과 실재는 빠져 있기에 비참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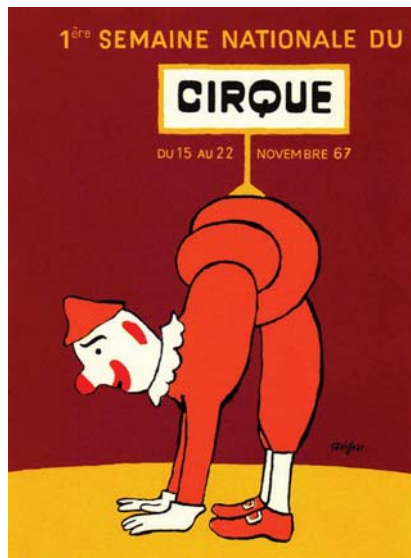
고깃덩어리 현대인

노래 '네모의 꿈'에서 보여주는 문명은 네모나다. 그러나 상상력의 철학자 바슐라르는 '인간은 둥근 존재'라고 말했다. 노래가 말하듯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둥글다. 본질적으로 둥근 우리가 네모라는 문명 속에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박 교수는 '네모 문명'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지금의 문명은 지나친 합리성을 인간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합리성은 언제나 수량화를 목표로 한다"며 "마치 당신의 토의 점수가 몇 점이나고 묻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 말대로 네모 문명 속 우리들은 무언가를 수치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우

리의 삶에서는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논문에는 이런 우리를 상징 하듯한 그림이 등장한다. 일러스트레이터 레이몬드 사비냐의 '서커스'다. 이 일러스트 속에는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박 교수는 그림을 보고 "마치 고깃덩어리 같다"고 말하며 "서커스 장면 같지만 사실 고기의 무게를 재듯 인간을 재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을 바라보는 회사가 정말 그들을 고귀한 인간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 눈에 취업생들은 저울로 재야하는 고깃덩어리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레이몬드 사비냐, 서커스

지껄인다 고로 존재한다

논문에 등장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지나치게 타인에 의존하면서도 타인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삶의 기준을 자유로운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직·간접적으로 감시하며 통제하는 타자가 좌우하고 있다"는 말에 이어 "사람들은 삶의 주인인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들의 구미대

로 살고자 하며, 그들이 만족하는 것에 나도 덩달아 만족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사비냐의 '부부'라는 그림을 소개한다. 그림 속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사이에는 유리벽이 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아내에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둘은 그저 홀로 지껄이고 있을 뿐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패러디해 박 교수는 말했다. "현대인의 지껄인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그림을 펼친 채 "현대인은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자가 아닌 자신과 수다를 떨면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달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예는 현실에서 종종 보인다. 우리는 바로 옆에 타인을 두고서도 SNS에 독백을 올리고는 한다. 이후 자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박 교수의 이야기는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의존하면서도 타인과의 대화에는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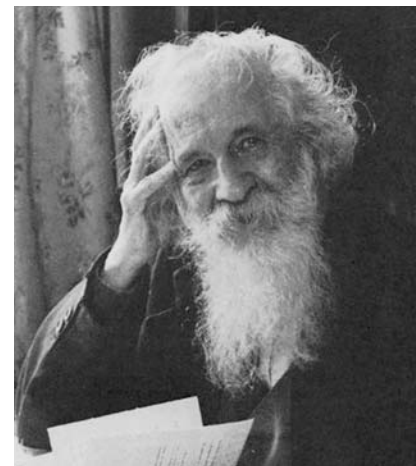
해법은 자연 상상력

겉은 화려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거스르는 이 시대, 해법은 없는 걸까. 그는 "결국 해법은 문명이라는 숙주에 기생하기를 그만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체, 삶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면 문명의 산품에 더는 침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영 채워지지 않을 욕망을 순간적으로나마 해소시켜보려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박 교수는 이에 더해 '자연적 상상력'을 강조한다. 그는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친 건조하고 날카로운 사고패턴을 자연 상상력을 통해 좀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연적 상상력'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상하다'는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박 교수는 "상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밝혔다. 오늘날 '상상'이라는 말을 공상이나 허구와 연결해 합리성의 반대에 있는 듯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박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는 상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물었다. "'그를 생각한다'는 말과 '그를 상상한다'는 말이 다른 것 같다." 사실 둘 다 우리 뇌 속에 '그'의 형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결국 '생각한다=상상한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있던 프랑스의 가스통 바슐라르 연구소 이름은 CRIDA. 그는 "CR에서 R은 합리성(Reason)을, I는 상상력(Imagination)을 의미한다"며 "바슐라르의 연구소 이름에 그 둘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상상력과 합리성이 붙어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성의 측근이며, 상상력이 이성의 반대편인 감성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상상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과 같다고 여기면 된다.



▲가스통 바슐라르(1884~1962)

노래 '네모의 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해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세상에서 마치 네모가 된 양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본질인 '둥글'을 은연중 꿈꾼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책 중에 '꿈꿀 권리'라는 책이 있다. '박술라르' 박치완 교수는 논문에서 이를 이용해 "감히 말하건대 인간은 아직 꿈꿀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다.

박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연구실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초가 타는 향이었다. 그는 촛불을 켜서 연구실의 냄새를 없애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최첨단 문명의 현대 시대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낭만적인 향이었다. 그가 말하는 '자연적 상상력을 통한 둥근 꿈'이 현대의 가장된 풍요로움 속에서 촛불 향처럼 은은히 퍼지기를 기대해본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ks.ac.kr

<박치완 교수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글로컬 시대의 지역서사, <세계문화비교연구> 42집, 2013.3
- 글로컬 시대의 철학: 세계화와 한국철학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25집, 2013.2
- 지역과 세계, 상대성과 보편성의 경계에 선 철학, <철학과 문화> 26집, 2013.8
- 지식과 세계화에 대한 재고, <해석학연구> 29집, 2012.4
- 탈영토화된 문화의 재영토화, <철학연구> 42집(고려대), 2011.3
- 글로벌시대의 문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학연구> 27집, 2011.3
- 왜 글로컬문화콘텐츠인가?, <인문콘텐츠> 20호, 2011.3

- 100개의 키워드로 읽는 문화콘텐츠 입문사전, 꿈꿀 권리, 2013.2
-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1
- 문화콘텐츠와 문화코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2
- 글로컬문화콘텐츠,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9

이외 다수. 박치완 교수의 최근 연구업적은 주로 철학의 외연 확대와 한국철학의 정체성 찾기에 집중돼 있다.

내려올때 비로소 보이는 꽃들

동문의 소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최규택(베트남어 80)



이번 해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5년의 방향을 잡는 국정과제도 설정하고 부처업무보고도 하고 2달 간격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민하고 있다. 모교로부터 원고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고 외대와 관련해서 뭘 쓸지 곰곰이 생각해보다보니 그동안 내가 참 소중한 기억들을 잊고 있었고 주위에 무관심한 채 내 세계에서만 살았구나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의식은 못했지만 지금까지 오느라 이 길에는 모교와 동문 선배들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항상 후광으로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80년도에 대학에 들어와 학과와 무관하게 시작한 고시공부에 대한 회의와 불안은 지금은 없어진 미네르바동산 옆 학생회관내 고시반에서 동고동락했던 선배들과의 토론과 술잔, 객기어린 행동 등 그 추억 속에서 하나하나 해소됐던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지금은 부처와 국회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의 선배들을 새삼 떠올리는 계기가 됐고 한번 다시 모임을 가져야겠다는 생산적인 생각도 하게 됐다. 그동안 해외근무를 몇 번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동문들이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생각해 보면 그 후광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맡은 업무 중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업무도 있었는데 언론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외대 선배들의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었던 기억들도 하나둘씩 떠올랐다. 이번 해는 84년부터 문화부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지 30년 되는 해다. 그리고 전망하는 자리에도 오게 됐다. 그런데 우연

한 기회에 글을 쓰면서 비로소 소중했던 꽃들이 하나둘씩 보였다. 외대, 대학동기들, 교수님, 같이 고민했던 고시반 선배들, 해외에서 친근하게 지냈던 선배들... 이번기회를 통해 모교의 의미와 동문들의 존재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후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대하며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하려 한다. 언론계, 금융,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해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 개인적으로는 문화부에도 후배들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미력하나마 조언 등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한류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많이 높아졌고 국격도 상승했다. 앞으로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교와 경쟁력을 갖춘 후배들의 멋진 비상을 기대한다.

외대공감 - 스티커를 붙여라!

이번 962호 외대공감에서는 이번 달 17일(월)부터 우리학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저는 이번 방학에는요~>라는 방학계획에 대한 주제로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방학을 맞는 대학생의 마음이 다 그렇듯 양 배움터의 결과가 비슷해 이번 조사 결과는 양 배움터의 합계를 합쳐 하나로 제시합니다.

1위 - 역시 돈이 최고 알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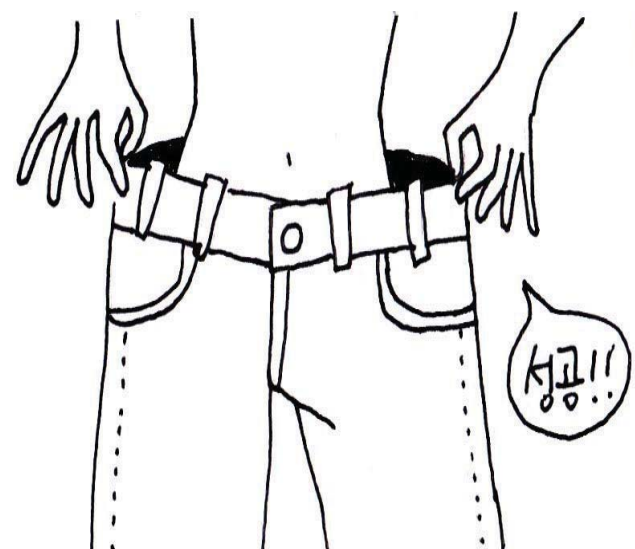
3위 - 방학이라고 실수 없지, 스펙 쌓기



2위 - 지금 안가면 언제 가겠어, 여행



4위 -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시라, 다이어트 / 성형



이번 호는 설문조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티커를 붙인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수용(동양어·몽골어 10군)은 "이번 방학에는 계절학기 수강하면서 학과 조교 일을 할 거예요"라며 "그 후 몽골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라고 방학계획을 이야기했다. 조현주(국제지역·아프리카 11)양은 "영어성적 향상을 위해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올 거예요"라며 "방학동안 놀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라고 다짐했다. 김대성(영어·영문 06)군은 "학기 중 왕성한 식욕으로 불어난 살을 빼기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라며 "목표는 뱃살빼기예요"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번 호를 종강호로 외대공감을 마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시고 후회 없는 알찬 방학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도 외대학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민지·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사설

외대학보의 뼈를 깎는 반성과 독자위원회의 역할

대학 신문 제작 과정에는 일반 독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바로, 주간교수와 학생 기자들 사이의 편집권 갈등이다. 학보사 운영자인 주간은 학교의 보직 교수인 까닭에 어느정도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게 마련이다. 반면, 학생 기자들은 학교가 원하는 기사보다 자신들이 쓰고 싶은 기사를 쓰려고 한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주간교수, 편집권'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 보면 여러 대학 신문사에서 벌어진 주간교수와 학생 기자 사이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대학보의 경우, 현 주간이 2012년 2월 부임하면서 추진했던 정책은 △학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흔한 기사의 재생산을 중단하고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학내 소식에 집중하게 하며, △교수, 대학원생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비중 있게 소개하고, △인물면에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외대와 관련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일이었다. 학생 기자들은 외대학보가 '학교 소식지 또는 홍보지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2월 28일에 발간된 946호의 사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신문의 역할'과 이어지는 947호 사설 '생존을 위한 변화의 수용'은 새로 부임한 주간교수가 외대학보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던진 중대한 화두였다. 오늘의 외대학보는 이런 갈등을 봉합해 가며 나오고 있다.

이번 학기 처음 구성된 독자위원회의 시각은 외대학보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독자위원들은 외대학보를 통해 학교 구석구석 소식을 알게 된 것을 호평하였다. 재학생 대상 총장 특강 보도가 너무 피상적이었다는 독자위원의 지적이 만약 주간교수 입에서 나왔다면 학생 기자들은 '학보가 학교 홍보지로 전락했다'고 불평했을 것이다. 독자위원들은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알게 된 점이나 우리학교 동문의 다양한 활약상이 인물면에 실리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959호에 유독 오타가 많았던 것도 실은 외대학보 내부의 부끄러운 갈등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원고를 쓰면 주간교수와 조교가 오타 등을 점검하며 원고를 수정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조교의 원고수정에 반발하면서 신문 조판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학기 외대학보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바로 독자위원회의 역할이었다. 독자위원들은 외대학보에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냉철하게 평을 하였고, 이런 평가를 통해 주간교수와 학생 기자들은 구태의연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외대학보가 나아갈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1학기를 마감하며, 외대학보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새 학기에는 독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신문,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해주는 말뿐이 아닌 진짜 정론지필을 실현할 것임을 다짐한다.

한 학기를 외국에서 보낸다는 것

우리학교 박철 총장이 이번 달 3일(월), 중앙일보 대학총장 연재 인터뷰 코너에서 7+1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번 인터뷰 외에도 홍보 책자 및 입학식 축사에서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7+1제도와 교환학생 등의 해외 파견학생 제도를 담았다. 이 제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는지 통계를 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외국에 다녀온 재학생 대상 인터뷰에서 해외파견 제도의 전교생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면 현재 언어를 전공하는 전공자뿐 아니라 언어를 전공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세계에서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먼저 7+1제도가 무엇인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 학교 차원에서 홍보는 잘 되고 있지만 학생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해외에서도 연계된 다양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유학을 떠난 재학생들이 외국에서 한 학기동안 학교와 기숙사를 오가며 그저 공부만 한다는 것이다. 길 다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을 외국에서 보내는 만큼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부지런히 그 나라에 대해 부딪혀 보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는 파견학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학교는 재학생들의 편리와 안전, 그리고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재학생은 그 자신이 외대의 대표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한다.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 오리라 하는 각오와 함께한다면 더 값지고 후회 없는 해외생활이 되지 않을까.

외대학보

www.oedae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운 부장 홍규원

차장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수습 구연지 김민지 김채훈 서보윤 이영호

임수진 정가림 주희진 최소영 허규범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경보미디어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외대학보를 독자위원회가 보증합니다



외대학보사는 지난 3월 6일(수)에 발행된 개강호인 957호 14면에 독자위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이번 학기부터 처음으로 본지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독자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독자위원회는 배움터 당 3명으로 서울배움터 △김미소(서양어·프랑스어 10)양 △신민식(법·법 06)군 △우지원(영어·영통 10)양, 글로벌배움터 △김경환(국제지역·러시아 13)군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양 △이태준(자연·생명공학 09)군으로 구성됐다. 독자위원회는 한 학기 동안 각 배움터 위원회별 외대학보에 대한 회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 호 '지나호를 말하다'를 작성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96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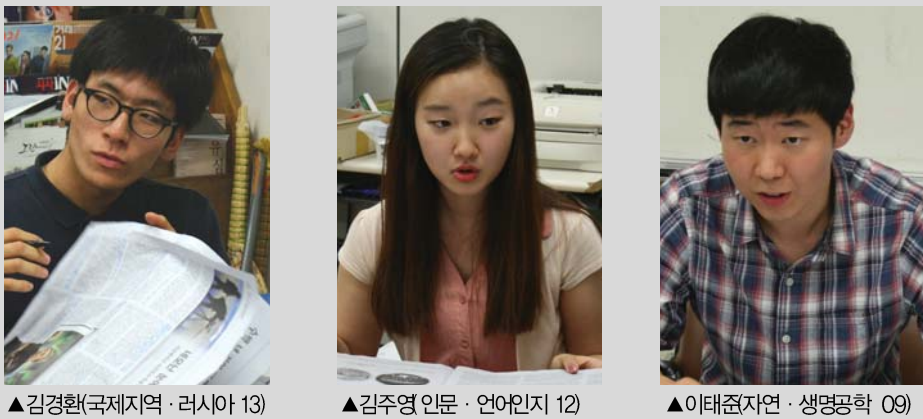
김경환 격주간지이지만 하지만 너무 지난 일이 실렸다. 또한 발행도 예정된 날짜보다 굉장히 미뤄졌다. 3면에 실린 글로벌배움터 체전의 경우 시작하는 내용이지만 이미 마지막 단체전까지 끝난 상태였다. 이태준 960호에 실린 '지나호를 말하다'에는 학교의 좋은 점만 부각시킨 사설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바로 옆 11면의 사설은 다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글이다. 그 글을 읽은 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위한 의도라는 사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김미소 그러나 '지나호를 말하다'처럼 다음호에 비판 내용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에서 비판을 하니 당황스럽다. 김주영 960호의 개교기념식 사진은 1면 사진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 그보다 '박철 총장 학생들과의 대화'를 크게 다뤄 1면에 배치하거나 자세하게 다뤘던 '학내 선거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좀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 이태준 하지만 960호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959호보다 오히려 즐겼고 충분히 검토한 것이 보였다. 또 백재승 교수의 인터뷰가 실려 반가웠다. 백재승 교수는 재부분야에서 우리학교를 넘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신민식 한편으로 960호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산만하다. 배치된 기사마다 주제도 없고 일관된 흐름도 없었다.

신민식 학생의 결식물을 다룬 '밥은 먹고 다니니' 기획기사는 마치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 대학생에게 흔하고 친숙한 내용을 잘 다뤘다. 이태준 결식 기사를 바탕으로 연결된 행사가 있어 좋았지만 당일 아침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니 이벤트가 끝나버려 아쉬웠다. 우지원 마찬가지로 취업준비생의 생활을 다룬 기획기사도 르포 형식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태준 지나치게 지난 소식이 매번 실리고 있다. SNS를 통해 발빠른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 이번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가 SNS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일례로 958호에는 정기총회 사진 1개뿐이지만 총학생회 페이스북에는 50여개가 실시간으로 게재됐다.

957호,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 보도해야

이태준 지난 해 수강신청 오류는 그 해 개강호에 기사로 실렸다. 그 내용 중 인터뷰로 '다음부터는 오류 없도록 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다. 직접 학교로 전화 해 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이후 언제 재개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런 내용이 개강호에 빠져 매우 아쉬웠다. 3면의 가로등 보수보다 차라리 수강신청 오류 기사가 더욱 와 닿았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꼬집어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글로벌배움터



▲김경환(국제지역·러시아 13)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이태준(자연·생명공학 09)

균형있는 시각과 따뜻함이 있었던 959호

김주영 959호의 코너 '뒷담 하는 기사'를 주의 깊게 봤다. 3면의 정기총회 기사에는 그날의 좋은 내용, 좋은 모습만 나와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산만했고 좋지 않은 것만 나왔다. 그 점을 '뒷담 하는 기사'에서 꼬집어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우지원 1면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당선인 사진은 연인으로 의심할 만큼 지나치게 나와 설정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환경미화원 신동진 선생님의 장학금 기부는 미담으로 학내구성원들의 모교사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신민식 또한 이 내용은 학교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로지 외대학보에만 실린 내용이다. 항상 실리는 지난 행사가 아닌 이런 미담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신민식 956호부터 960호까지의 총 5호 중 957호가 가장 알차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평소엔 느꼈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학교 동문인지 몰랐던 레플리터블 제작자를 인터뷰해 또 한번 좋은 인물을 알린 것 같다. 시기도 매우 적절했다. 한 학기 늦었지만 증면돼 실렸던 학술대회 수상작은 외대학보의 품격을 높이기도 했다. 이태준 2면의 등록금 기사는 매 해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너무 작게 실려 성의가 없었다. 학생에게 있어 등록금 기사는 중요하게 다뤄 필요가 있다. 또 7면의 세 학과의 소개는 세 개로 끝나 아쉽다. 실리지 못한 과에서는 서운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세 학과 선정 기준을 모르겠다. 이 기사를 보고 학생이 직접 학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익숙했던 너가 달리 보인다, 958호

김주영 과회비 기사는 아주 의미 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문제 삼지 않았던 과회비에 대해 사용 내역과 책정과정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줬다. 이 기사를 발단으로 내가 속한 인문대학에서는 과회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학생들에게 생각해 볼만한 주제를 전달했다.

내용도 특별해야 특집호

김경환 새내기 특집호로 방학 중에 발행돼 본 사람이 많이 없다. 1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전면 사진 구성으로 눈길을 끌기에는 좋은 시도이다. 다음에 특집호가 또 있다면 활용할 만 하다. 신민식 신입생 대상이라는 것에 비해 제일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짚어주지 못한 듯하다. 학식이나 한

◆ 서울배움터



▲김미소(서양어·프랑스어 10) ▲신민식(법·법 06) ▲우지원(영어·영통 10)

해 일정보다 더욱 중요하고 복잡한 이중전공 같은 학사 제도에 대해 알려줬더라면 더욱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태준 가령 957호 학내 유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4면 기사를 956호에 실었다면 새내기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이다.

당근으로 달래고 채찍으로 보치고

김주영 960호의 기획기사 '일하는 대학생-대학생은 근무 중'이 가장 좋았다. 발행될 시점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기도 했다. 또한 대학생과 아르바이트는 뭘 수 없는 관계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법한 내용이기도 해 나 또한 공감이 많이 갔다. 또 제시된 사례마다 문제의 이유와 우리학교 법률상담소를 소개해 좋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해결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반면 960호의 '수백 년 기억 담은 성북'은 왜 외대학보에 실렸는지 모르겠다. 시기도 늦었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없었다. 이태준 957호 6면의 수업자료의 저작권 기사는 개강호에 맞춰 잘 나온 내용인 것 같다. 학기 초반에는 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뒷도 모르고 선배를 따라 복사했던 신입생에게는 새로운 내용을, 무심코 지나쳤던 재학생에게는 고민해 볼 문제를 던졌다. 958호 과회비 기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만 957호의 20대 취업난에 대한 내용을 다룬 고정칼럼 '빈의 자'가 아쉬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가 많이 빠져있어 아쉽다. 그 때 광역화로 재학생들은 불만이 많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기사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외대학보의 진단은 독자위원회에게

김주영 10면, 11면은 독자나 외대 구성원에게 허락된 '열린공간'이라는 면이다. 하지만 현재 '열린공간'은 독자에게 열리지 않았다. 독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비둘기철판'과 독자위원이 쓰는 '지나호를 말하다' 정도이다.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것이 무척 아쉽다. 신민식 국제면인 5면 Earthme는 매 호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 김미소 그렇다. Earthme는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용에 대한 깊이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5면은 전체적으로 늘 부족하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김경환 5면의 세계브리핑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는 지면을 할애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을 지면에 한참 지난 뒤 실린다. 내용은 인터넷 기사의 번역일 뿐이다. 신민식 외대학보가 이전에는 집으로 보내졌다. 그런데도 읽어본 적이 없다. 사실 이번 독자위원회를 통해 읽게 된 것이다. 막상 읽어보니 재밌다. 예상 밖이라 놀랐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 외대학보를 읽는다는 학생이 사실 거의 없다. 학생들이 한 번 펼치는 데까지 유도한다면 그 이후로는 문제없을 것이다. 김미소 동의한다. 계속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에 독자를 잡기에는 1면 머리기사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 같다. 단번에 이목을 끌 수 있는 기사가 중요하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읽게 될 테지만 그 한번이 어렵다.

사회·정리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사진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양 배움터 독자위원과 진행을 맡은 기자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 학기동안 발행된 신문과 전반적인 외대학보의 비평들이 오갔다